

뉴스홈 | 최신기사

## &lt;올림픽&gt; 그리스, 도핑적발 랭킹 1위 '불명예'

송고시간 | 2008-08-18 13:33

이영호 기자  
기자 페이지

&lt;올림픽&gt; 그리스, 도핑적발 랭킹 1위 '불명예'

(베이징=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근대 올림픽의 발상지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도핑 적발' 랭킹 단독 1위에 올랐다.

미국 스포츠전문 스포츠일러스테이트(SI)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국별로 도핑에 적발된 선수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총 56명의 선수들이 도핑 문제로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경기를 치른 뒤 적발됐다"고 밝혔다.

GS SHOP  
특급 혜택 받으세요! ◆ 5,000 10,000

이번 순위에서 대망(?)의 1위는 역도, 육상, 수영, 복싱 종목에서 총 16명이 도핑에 걸린 그리스가 차지했다.

그리스는 지난 6월 역도 대표팀 선수 11명에게서 금지약물 양성 반응이 나타나자 이들에게 2년간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때 문에 그리스는 이번 대회 역도 종목에 단 한 명의 출전자도 내지 못했다.

역도에서 벌어진 '도핑 폭풍'의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2004년 아테네 대회도 도핑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육상이었다.

남자 육상 200m에 출전할 타소스 고우시스를 비롯해 지난 2004년 대회에서 여자 100m 은메달리스트 카테리나 타노우와 여자 400m 허들 금메달리스트 파니 할키아 등 3명이 대회 직전 처리된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출전권을 박탈당하자 그리스 선수단은 완전히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메달 기대주들이 줄줄이 빠지는 통에 그리스는 18일 오전 현재 은메달 1개(조정)와 동메달 2개(요트, 육상 여자 3단 점프)를 따내는데 그치고 있다.

그리스의 뒤를 이은 불가리아는 총 13명이 출전금지를 처분을 당해 2위에 올랐다.

불가리아 역시 11명의 역도 선수가 도핑 양성 반응을 보인 가운데 배구 대표팀 주장인 플라멘 콘스탄티노프와 여자 육상 1,500m에 출전할 예정이던 다니엘라 요다노바(32)가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로 인해 출전권을 박탈당했다.

3위는 11명의 선수가 출전금지 처분을 받은 러시아의 몫으로 돌아갔고, 개최국 중국은 경보와 수영, 레슬링에서 각 1명씩 총 3명이 도핑에 적발돼 루마니아와 함께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북한은 브라질, 덴마크, 인도, 자메이카, 네덜란드, 미국, 스페인, 베트남(이상 1명) 등과 함께 공동 7위를 기록했다.

hom9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lt;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gt; 2008/08/18 13:33 송고

1010회  
모토당첨결과 9 12 15 25 34 36 + 3

핫뉴스 →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산'  
기네스북 등재'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마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 체포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가족 찾기 사연 보러가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 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뚝뚝...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정갑차...美, 꺼렸던 무기를  
결국 우크라이나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링크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We Do Technology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 뉴스

2년1개월만 거리두기 전면해제...다음주부터 인원  
·시간 제한없다

신규확진 12만5846명...위중증 999명, 이틀연속 900명대

尹당선인 "물가상승 장기화 대비...금리인상 취약층 피해 최소화"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찰에 고발

157
- 2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7
- 3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할  
동재개 예열?

56
- 4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힐 예정"

41
- 5

[팩트체크]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계곡살인'을 검  
찰이 혐의 밝혀냈나?

29

뭐하고 놀까? #홍→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 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데미벨뉴스 핫뉴스 토크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크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자료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개인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지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기예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상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ws